

전일동향

전일 증가와 동일한 1,453.80원에 마감

1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증가와 동일한 1,453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20원 상승한 1,454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미국-EU 관세전쟁 고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1,456.90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. 그러나 네고물량 출회 등에 환율은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합권까지 하락해 1,453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4.4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77.80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54.00	1456.90	1452.50	1453.80	1454.80
엔화	983.37	985.96	975.79	978.19	-	
유로화	1577.66	1587.05	1573.45	1581.44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15	-5.96	-13.43
결제환율(수입)	-0.7	-5.11	-11.65	-23.86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독일 경기부양 합의에...1,44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53.80) 대비 2.40원 하락한 1,449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독일 기민당 메르츠 대표는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및 국방 특별기금 수립을 위한 법안에 대해 녹색당과 합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. 독일 경기부양 기대 강화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였다. 이에 유로-달러는 0.0026달러 상승한 1.0878달러로 마감했다. 한편 미국 3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.9%로 2월 4.3%보다 0.6%p 상승했다.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월 3.5%에서 3월 3.9%로 상승했다. 달러화는 유로화 강세에 낙폭을 확대했으나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낙폭을 축소하며 0.09% 하락한 103.74pt를 기록했다. 금일 환율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유입 등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. 아울러 금일 예정된 중국 3대 실물 경기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위안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며, 이는 원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44.50 ~ 1453.75 원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894.0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4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1488.19, +674.62p(+1.65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70.0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816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